

국악 축제...우리가락 매력 터지네~



제1회 국악의날(6월 5일)을 맞아 '2025 굿음악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왼쪽부터 남해안별신굿보존회, 박법태와 굿프렌즈, 일본 아키토모가구리보존회의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5일~15일 국악주간...국립남도국악원, 공연·체험 프로그램 다채 남도잡가·강강술래 등 전통예술 공연...아시아 샤머니즘 예술 조명

오는 6월 5일은 '국악의 날'이다.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누리고자 만든 음악 '여민락(與民樂)'이 처음 실록에 등장한 이 날은, 지난해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며 한층 깊은 의미를 갖게 됐다.

국악의 날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 예술이 잊히지 않도록 우리 소리의 뿌리를 되새기고, 전통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첫 국악의 날을 맞아 국립남도국악원은 '국악과 함께, 모두가 하나로'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마련했다. 국악의 날을 시작으로 15일까지 '국악주간'이 운영되며 공연, 체험,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5일 오후 4시 진도무형유산전수관 마당에서 열리는 기념공연 '굿이 Good이여!'는 지역 전통예술인 중심으로 구성된 남도의 맛과 흥을 담아낸다. 진도다시래기, 남도잡가, 강강술래, 대동놀이 등 오랜 시간 지역의 삶과 함께해온 전통예술이 관객과 만난다.

14일에는 자연 속에서 국악과 명상을 함께하는

'국악 치유 명상'이 국악원 야외마당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고, 기악합주 '천년만세', 대금독주 '청성곡' 등 전통음악을 통해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갖는다. 소리와 침묵이 공존하는 특별한 순간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에 작지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다.

우리 음악이 남도를 넘어 아시아, 그리고 세계와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도 펼쳐진다. 국악원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달빛마당에서 '2025 굿음악축제'를 연다. '아시아의 굿음악·치유와 위로의 공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샤머니즘 예술을 조명하며, 굿이라는 전통의례 속에 깃든 공동체적 정서와 치유의 의미를 되새긴다.

축제의 첫날인 19일에는 일본의 전통 제의인 '다카치호 가구리'가 개막 무대를 장식한다. '다카치호 가구리'는 일본 신화의 발상지로도 알려진 미야자키현 다카치호 지역에서 밤새 이어지는 신을 모시는 가부 의식으로, 이국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일본 제의의 색다른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0일에는 베트남의 전통 무속의례 '렌둥' 공연이 이어진다. 렌둥은 베트남의 성모신앙

을 기반으로 한 굿 형식의 제의로, 무당이 여러 신의 복장을 차려 입고 점진해 춤과 음악으로 신을 모시는 의식이다.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려한 의상, 신비로운 음악이 어우러져 아시아 무속문화의 다채로운 풍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전통 국악시 다양한 형식으로 무대에 오른다. 전통음악 단체 '우리소리바라지'는 진도씻김굿과 남도벚노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공연 '입고출신'을 선보인다. '박법태와 굿프렌즈'는 동해별신굿의 소리와 춤, 장단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 '고을마기'를 무대에 올린다. 이어지는 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보존회의 '동영오귀새남굿'은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의례로, 굿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축제에는 전통공연 뿐 아니라 사주, 타로, MBTI, 부적판들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할 예정인 만큼 가족과 연인, 친구 모두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국악의 날이 단순히 전통을 기리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곳곳에 살아 숨 쉬는 국악의 생생한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의 숨결을 일상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해, 국악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친 일상에 '인문학 충전'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정기강좌...언어·철학·문학 등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가 6월 127기 정기강좌를 연다. 이번 제127기 강좌는 오는 27일까지(화요일 제외)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먼저 월요일(9일, 23일) '몸-언어-철학' 시간에는 서명원 교수가 '체험주의: 신체화된 마음'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11일, 25일)에는 신우진 책임연구원이 '토론기법: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목요일(5일, 19일) '맑스 세미나' 시간에는 위상복 교수가 '블라디미르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강의한다.

금요일(13일, 27일)에는 신광용 이사장이 '하루키 월드-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진행한다.

일요일 '인문학식' 시간에는 당일치기로 진정한 이사 등이 '호남문인들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펼친다.

한편 명혜영 대표가 진행하는 명혜영인문교실(오후 7시 월요일, 목요일 제외)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된다. '슬로우리딩: 양귀자 소설 읽기-모순', '독립영화읽기-중년의 삶', '일본문화산책-언어에서 문화까지', '들뢰즈철학-차이와 반복', '미술독서모임-뱅크시', '에세이 창작반-인생을 쓰는 시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나이 들어간다는 것

위훈환 시인 에세이집 '노년의 아름다운 삶' 펴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늙고 죽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곳에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으며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우리 모두는 늙는다.

노년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사유한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위훈환 시인이 펴낸 '노년의 아름다운 삶' (문학들)은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직하고 시골로 낙향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저자의 단상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자연을 벗하며 사는 작금의 일상에서 문득문득 노년의 삶을 떠올렸다. 이 과정에서 노년은 두 가지 사유의 문제를 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나는 노년의 시간이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다른 하나는 왜 이리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슬로우에이징(slow-aging)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젊다는 생각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을 찾아 도전해야 한다"며 "그것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전했다.

책은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노년의 삶'은 '노년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담고 있다. 2부 '노년의 행복'은 '운동은 삶의 보약이다', '사랑과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다' 등의 소주제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감사하며 사는 삶이다. 아침에 기상했을 때 지난날에 고마웠던 일들을 회상해볼 것을 권한다. 즐거운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을 견지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저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곧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한다.

한편 위 시인은 조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학예술'로 등단했으며 시집 '동백꽃 초록 그늘에서 서면'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 예술가 시선으로 본 '오월'

5·18 행사위 예술 프로젝트...전시·웹툰·음악 등 협업 콘텐츠 발표



'청년, 오월을 이어적다' 프로젝트 참여 창작자들. 왼쪽부터 음악 박준현, 웹툰 최지민, 공연 극단 밝은 밤 최혜민, 전시 손대현.

청년 창작자들이 5·18의 정신을 자신만의 언어로 새롭게 써 내려간다.

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청년들의 시선으로 오월을 재해석하고 예술로 풀어내는 프로젝트 '청년, 오월을 이어적다'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월정신을 계승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웹툰,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장르가 동원되며, 형식의 벽을 허문 협업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발표된다. 단발성 행사에서 벗어나 창작자 간의 교류와 실험을 통해 이야기를 축적하고, 이를 광주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도청의 밤'에서 출발했다. 지난 26일, 참여자들은 1980년 5월 계엄군이 진입했던 그날 밤을 모티브로 삼아 첫 리서치 활동에 나섰다. 이후 총 세 차례의 리서치를 통해 세대 간 인식 차와 콘텐츠 전달 방식에 대해 고민하며, 어떻게 5·18정신을 청년의 감각으로 해석할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은 인스타그램과 웹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오는 6월 18일부터는 웹툰, 음악, 전시, 공연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웹툰의 스토리를 차용하고 음악으로 BGM으로 삼는 등 서로 다른 장르를 융합해 민주주의의 서사를 현재와 미래로 있는 작업을 펼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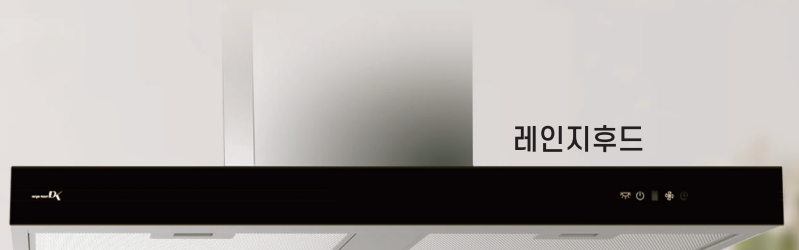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